2035년 한국 '나홀로 가구' 34.6% … 영국·호주보다 흔해진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발표

'아이 안 낳아' … 2019년 1인가구, 부부+자녀가구 추월

고령화 영향 … 2045년 1인가구 20%는 홀로사는 70대

전남도 농어촌 등 독거노인 비중 늘어 사회적 문제 심각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5년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 서구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비중 역시 높아지고 2045년 1인 가구 20%는 70대가 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남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1인가구와 고령의 독거노인 비중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혼자 사는 가구 급증**=통계청은 13일 '장래가구추계 : 2015~2045년'을 발표했다. 장래가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태통계 등을 기초 자료로 해서 작성되며 5년마다 발표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6명)보다 0.07명 많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OECD 회원국 중 9위로, 미국(2.53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멕시코가 3.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터키(3.32명)와 이스라엘(3.32명)도 3명이 넘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구성비는 2015년 기준 27.2%로 OECD 평균인 30.7%보다 낮았다. 캐나다(2011년·27.6%), 미국(2011년·26.7%)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핀란드의 1인 가구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고, 에스토니아(39.9%), 노르웨이(39.6%), 덴마크(37.5%), 독일(37.3%)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는 가구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20년 뒤인 2035년에는 서구 선진국보다 오히려 1인 가구나 고령자가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2035년 한국의 1인 가구 구성비는 34.6%로 일본(37.2%)보다는 낮지만 영국(2039년·30.7%), 캐나다(2036년·30.4%), 호주(26.5%), 뉴질랜드(2033년·26.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39.2%로 역시 일본(40.8%)보다는 낮지만 영국(2039년·37%)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없는 가구 급증**=저출산 영향으로 2045년이 되면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1~2명의 자녀가 있는 집을 떠올리던 대한민국 '보통 가정'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영향으로 2045년에는 1인 가구주 5명 중 1명은 70대가 되면서 독거노인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총가구 수는 2015년 1901만 3000 가구에서 매년 늘어나 2043년 2234만 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5년 2231만 8000가구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에서 2.1명까지 줄어든다. 저출산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줄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유형 순위도 뒤바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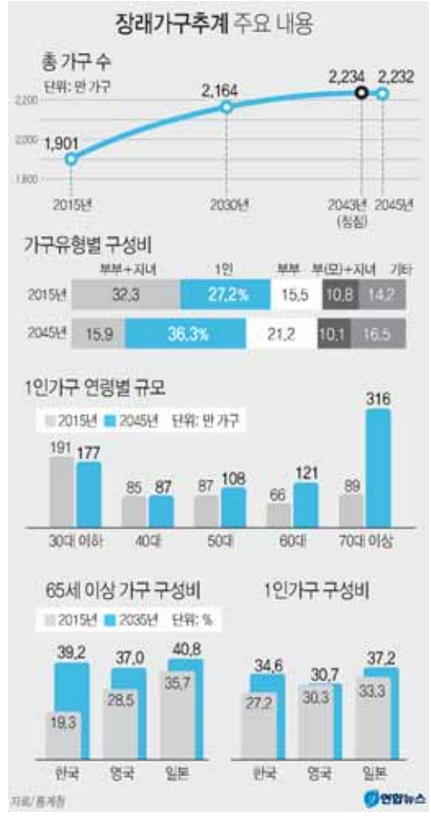
2015년 가구 유형별 비중은 부부+자녀 가구(32.3%), 1인 가구(27.2%), 부부 가구(15.5%) 순이지만 2045년에는 1인 가구(36.3%), 부부 가구(21.2), 부부+자녀 가구(15.9%) 순으로 바뀐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부터 부부+자녀 가구 비중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가구 유형 중 특히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5년 518만 가구인 1인 가구는 2045년 809만 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1인 가구주 연령대는 2015년 30대(18.5%), 20대(17.2%), 50대(16.7%) 순으로 많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2045년에는 70대가 21.5%로 가장 많아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진정성 갖고 광주·전남 지역민에 다가가 문후보의 정책능력·도덕적 장점 알릴 것"

민주 선대위 특보단장 전해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은 전해철(54·경기 안산 상록갑)의원은 1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다가가 문 후보가 지닌 정책적 능력, 도덕적 측면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조직특보단장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역의원이 없다 보니 민주당과 지역이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목포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호남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에 내려왔다.

그는 "광주와 전남지역 현역은 이개호 의원 혼자인 만큼 호남에 연고를 둔 의원들이 선거일 전까지 광주·전남을 돌며 직접 현장 민심을 듣고 가슴으로 감성적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놓고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때 수권정당이 어떤 당인지,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호남을 대변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호남 홀대론'이 호남에서 문 후보에 대한 반문(反文) 정서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주요 사정기관과 주요 중앙부처에 많은 호남 인재들이 등용됐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호남 홀대론'에 대해 강한 반론을 피력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문 후보와 함께 근무할 때 정책 능력이 뛰어난 점을 알았다"면서 "꼼꼼하게 정책을 체크하고, 살피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이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욱 자주 찾아뵙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시절 민변활동을 해오다 2004년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어 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분권·영호남 상생발전 대선공약 채택을"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광주와 전남,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뜻을 모아 채택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남부권 철도망 확충 및 광역도로망 구축,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가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광주신보재단 이사장 후보자 청문회 졸속·봐주기 논란

13일 열린 박종광(55)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과 관리 위주 운영 방침, 음주운전 전력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단행된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임에도 불과 2시간여만에 종료돼 제대로 된 검증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데다, 송곳 질문보다는 격려와 당부 발언이 많아 졸속과 봐주기 논란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정현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재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고, 특히 부동산 관련 의혹에 질의가 쏟아졌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농지 불법 소유와 부동산 등기법 위반 소지가 논란이 됐다. 또 과거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박 후보자는 "100%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예리한 송곳 질문보다는 겉핥기식 질의가 대부분을 이뤘고 "잘 부탁드린다" "기대가 크다"는 격려와 당부 발언도 적잖았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경과 보고를 한 뒤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티볼리 출시 2주년! 2년 연속 소형 SUV 1위 기념

•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장착 50% 지원 (일시불시)

SMART DRIVING PACKAGE = 주행중 차선을 알아서 지켜주는 *차선이탈 자동복귀 시스템* + 전방 추돌 위험시 스스로 멈춰주는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 + 야간 운전시 안전 주행을 도와주는 *하이빔 어시스트*

• Safety 저리 할부+2CH 블랙박스
선수율 Zero, 3.9% (36~48개월)

• Happy Twice 할부
선수율 Zero, 4.9% (60~72개월) + 유류비 30만원 지원

〈티볼리〉 • 1.6 e-XGi 2WD 수동 6단 : 복합 11.9km/ℓ [도심주행 10.8km/ℓ, 고속도로 13.3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270kg | CO2 배출량 : 142g/km | 3등급 • 1.6 e-XGi 2WD 자동 6단 : 복합 11.4km/ℓ [도심주행 10.1km/ℓ, 고속도로 13.4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300kg | CO2 배출량 : 148g/km | 4등급 • 1.6 e-XGi 4WD 자동 6단 : 복합 10.7km/ℓ [도심주행 9.4km/ℓ, 고속도로 12.7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410kg | CO2 배출량 : 158g/km | 4등급 • 1.6 e-XDi 2WD 자동 6단 : 복합 14.7km/ℓ [도심주행 13.1km/ℓ, 고속도로 17.2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395kg | CO2 배출량 : 129g/km | 2등급 • 1.6 e-XDi 4WD 자동 6단 : 복합 13.9km/ℓ [도심주행 12.5km/ℓ, 고속도로 16.1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496kg | CO2 배출량 : 137g/km | 2등급 〈티볼리 에어〉 • 2WD 수동 6단 : 복합 15.7km/ℓ [도심주행 14.5km/ℓ, 고속도로 17.4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410kg | CO2 배출량 : 120g/km | 2등급 • 자동 6단 : 복합 13.8km/ℓ [도심주행 12.3km/ℓ, 고속도로 16.1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449kg | CO2 배출량 : 138g/km | 2등급 • 4WD 자동 6단 : 복합 13.3km/ℓ [도심주행 11.2km/ℓ, 고속도로 15.5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535kg | CO2 배출량 : 144g/km | 3등급 • 2WD 자동 6단 : 복합 10.8km/ℓ [도심주행 9.7km/ℓ, 고속도로 12.5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359kg | CO2 배출량 : 153g/km | 4등급 • 4WD 자동 6단 : 복합 10.0km/ℓ [도심주행 8.9km/ℓ, 고속도로 11.7km/ℓ] | 배기량 : 1,597cc | 공차중량 : 1,459kg | CO2 배출량 : 161g/km | 4등급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구입문의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양산 573-8900
• 전남권 (061)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양 791-0071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서광양 761-8900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여수구봉 642-1400 함평 324-3800